

신년취호

새 아침 칼럼

‘부적’ 못 알아보는 도깨비가 필요하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흐르는 세월에 끝과 시작의 새 마디를 엮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에는 시종(始終)이 없을지 몰라도 일에는 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심(發心)의 전후가 다르듯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일 년은 돌아보고 점검하는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26일 자성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뒤 처진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새로운 불교를 만들고자하는 실천적 결단이었습니 다. 결사 선언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탓’을 말하자면 건국 이래 권력자들의 진미 기록과 성향,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기록과 편향 정책 탓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자성의 바탕위에 결사가 지향하는 새로운 한국불교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불교
 - 외부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여 우리 스스로 중단을 운영하는 자부불교
 - 종단 및 사찰 운영에 있어 대중공의를 실천하는 불교
 - 생명평화의 실천을 통해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는 불교
- 한마디로 한국불교의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어왔던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을 선포한 지 꼭 일 년 되었습니다. 결사 선언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만큼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도법스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결사본부가 만들어졌으며, 결사본부 산하에 크고 작은 여러 위원회가 결사의 이념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이번 결사가 ‘대중공사’라고 하는 불교전통의 개혁방식을



조 성 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자성 쇄신 결사에 불교 미래 달려

그 분기점이 임진년 대중공사

우리 각자가 개혁 주체·대상 돼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공사’란 말 그대로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불교 전통의 민주적 공의절차입니다. 결사본부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중공사를 위한 의견수렴과 함께 자료집과 누리집을 만드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준비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대중공사가 올해 초부터 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불교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1년의 ‘자성과 쇄신’ 결사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슬그머니 ‘뽕 꼬리’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올 임진년(壬辰年) 시작되는 대중공사의 성패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중공사가 성공적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부대중의 참여의식입니다. 여기에서 침묵은 미덕일 수 없습니다. 활발한 의견 개진은 물론이며, 불꽃 튀는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야단법석’과 ‘아사리판’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속(僧俗), 노소(老少), 승니(僧尼)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 불교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부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동안 불교계에는 개혁을 가로막는 많은 ‘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직(聖職)이라는 부적, 원로라는 부적, 전통이라는 부적, 관행이라는 부적 등 구태(舊態)를 상징하는 많은 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적이 부적일 수 있는 것은 도깨비가 부적을 알아볼 때 문입니다. 도깨비가 몰라본다면 부적은 더 이상 부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부적을 몰라보는 용기와 부적을 무시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의 원천은 부처님의 정법에 대한 확신이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입니다.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중의 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유신(維新)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다. 파괴란 무엇인가, 유신의 어머니이다. 세상에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개 말들을 할 줄 알지만 파괴 없는 유신이 없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

저는 만해의 이 말씀이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대중공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해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그러한 파괴는 파괴가 아니라 유신이며, 개혁일 것입니다. 요즘말로 한다면 ‘창조적 파괴’(de-creation) 정도가 될 것이고, 불교 표현으로 하자면 파사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파괴와 창조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딛고 선 땅을 박차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개혁은 자기부정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긍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성과 쇄신 또한 그러합니다. 자성의 그 지점이 바로 쇄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면서 개혁의 주체가 될 때 한국불교는 21세기 새로운 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그간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작동해오던 각종의 ‘부적’들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우선 저 자신부터 개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 새해인사를 마칩니다.

社說

세상 변화의 주인공 되자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어느 해 보다 경건하고 비장하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안보 상황마저 뒤숭숭한데다가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이 주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순항하는 한 해가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인들 진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마는, 무지갯빛 꿈에 부풀어 있을 한가한 시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상처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그 시끄러움과 상처를 약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지 않았는가? <보살상매론>에서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살이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다. 병도 곤란도 장애도 모두 바른 삶을 개척하는데 약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혼란을 질서로, 두려움을 용기로, 분열을 통합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는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불자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세간 격동의 바람이 불어도 불자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진심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진실한 마음, 진리에 계합한 마음, 진실을 숭상하는 마음이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동사설의 도로로 살아가는 것이 진심의 삶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여 큰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심이고, 정의의 위해 기꺼이 목숨도 던지는 용기도 진심이다. 진심은 선과 악의 개념도

초월한 절대선의 자리에서 삶의 승고한 에너지를 분출시켜 준다. 진심은 불심인 것이다.

진심을 잃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안보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총선과 대선에서도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진심이 빛을 바랜 탓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편견과 독선이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못 만들어 내지 못하는 탓이다. 물론 편견과 독선은 진심을 잃어버린 곳에서 자라는 독버섯이다.

진심을 잃지 않으면,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 모든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나와 남을 따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고 너는 언제까지 나인가? 어제의 네가 오늘의 나임을 자각하고 원용과 화합의 길을 밝힐 때 세상은 정토가 된다.

진심을 잃지 않으면, 그야말로 곳곳이 부처님 땅이고 일마다 부처님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올 한해 불자들은 진심이라는 두 글자를 뼈에 새기고 살기를 당부 한다. 진심이 모든 불자들에게 공통의 화두가 되길 제안한다. 그래야 불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결사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빛바래지 않는 진심으로 항상 맑고 향기로운 삶을 열어가려는 불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그 주변에 불자를 닮으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것이 불법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불자가 부처님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불자를 닮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

동성 스님은...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동진 출가해 1964년 정덕 스님을 은사로 승려가 됐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 선학과, 동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수학했다. 부처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화를 창작하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19차례의 선화전을 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불교를 전하는 문화포교에 정진해왔다. 스님은 경남향승(군종담당관)위원장,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선미술인회 대표, 창원 봉곡사 주지이다.



동성 스님은 ...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동진 출가해 1964년 정덕 스님을 은사로 승려가 됐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 선학과, 동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수학했다. 부처님 가르침과 화두가 있는 선화를 창작하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19차례의 선화전을 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불교를 전하는 문화포교에 정진해왔다. 스님은 경남향승(군종담당관)위원장,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선미술인회 대표, 창원 봉곡사 주지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외사출 현물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물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물 현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행 요강을 준수한다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17교구 본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 보현사
화엄불교대학 · 부설 룸비니 어린이집
 주 지 일원
 상임지도법사 제 환
 ttp://www.jbbulgyo.org/

법회안내

-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 신도신행연합법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 청년회 법회 - 매월 2·4주 수요일 오후 7시
- * 화엄불교대학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 대불련 연합법회 - 매월 1·3주 금요일 오후 7시
- * 운전자 불자 연합회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 합창단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 (063)277-3497 / Fax (063)275-0108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술원
 운문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학 장 명 성
 주 지 일 진
 울원장 흥 룬

대 중 일 동

■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